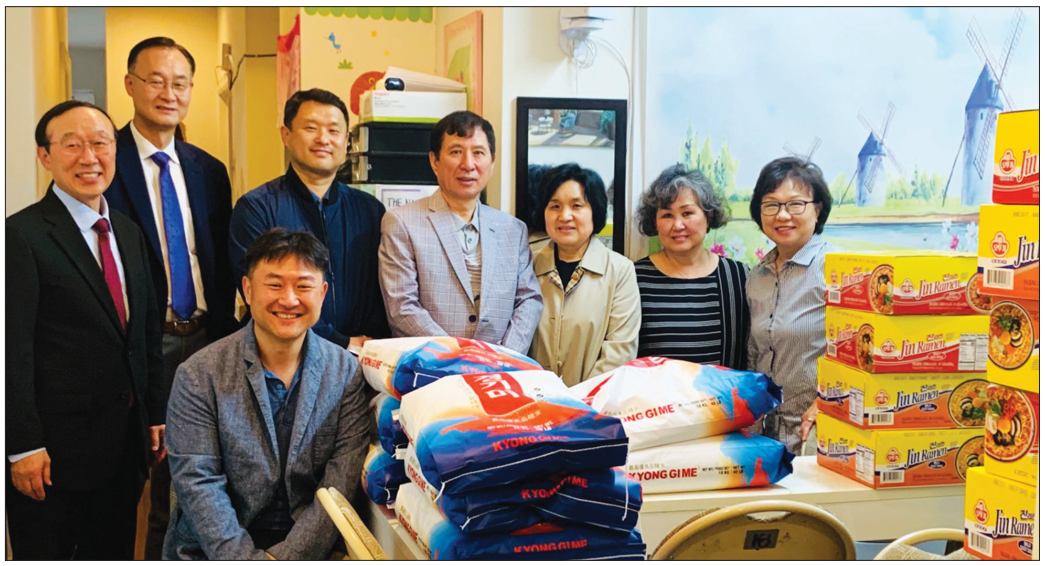
대뉴욕지구 한인보험재정협회 28회 연례 갈라 "감사 만발"

대뉴욕지구 한인보험재정협회(회장 켈리 강)는 20일 그레이트넥에 있는 레너즈 팔라조 연회장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8회 연례 갈라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켈리 강 회장은 전직 회장단들을 소개하며 "오랜 기간 동안 협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이여은 기자]



뉴욕성서교회 담임 김종일 목사와 교우들이 16일 미주한인노숙인 돌보기 비영리전문기관 더나눔하우스를 방문, 쌀과 라면과 도시락 20개를 전달했다. 오른쪽 부터 뉴욕성서교회 원재숙 권사, 교우들, 김종일 목사, 더나눔하우스 박성원 목사. [사진 제공-더나눔하우스]

뉴욕성서교회, 더나눔하우스 방문… 형제들 위로하고 식량 제공

뉴욕성서교회 담임 김종일 목사와 교우들이 16일 미주한인노숙인 돌보기 비영리전문기관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 쌀과 라면과 도시락 20개를 전달했다. 이날 뉴욕성서교회 교우들의 특별 찬양 후에 김종일 목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만찬으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제공했다.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는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 장애로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감동을 주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더나눔하우스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일년에 한번씩 더나눔하우스 방문 일정을 세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동역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나눔하우스 문의: 718-683-8884

뉴저지한인상록회, 26일 버겐 카운티 시니어 아파트 신청 간담회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차영자)는 26일(수) 오후 2시부터 상록회 컨퍼런스 룸에서 버겐 카운티 시니어 아파트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상록회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인들도 착각하기 쉬운 시니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세미나를 26일 갖는다. 시니어 아파트 신청과 관련하여 버겐 카운티 정부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직접 나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록회는 협소한 장소와 주차장 관계로 참여 희망자들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 선착순 30명.

△뉴저지한인상록회 주소: 133 Fort Lee Rd. #3Fl., Leonia, NJ 07605
△문의: (201) 945-2400 kascanj@gmail.com

한국미술포럼 '공유대화, 공유공간' 함께 즐기세요

22일 정오부터 플러싱 바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공연

한국미술포럼(Korea Art Forum, KAF)은 22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 바운 플레이그라운드(Union St +Sanford Ave 코너)에서 문화행사 '한국미술포럼 2023 공유대화, 공유공간'을 진행한다. 입장은 무료이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공유대화, 공유공간'은 뉴욕시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야외 참여 예술 행사이다. KAF는 커뮤니티 공원에서 예술가가 주도하는 워크숍과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년 동안 '공유대화 공유공간'은 현대 미술계와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소통 채널을 넓혀 대중과 교류하려는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발전돼왔다.

KAF는 "22일 행사는 아티스트와 커뮤니티의 다양한 재능과 관점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 커뮤니티의 모습을 형성하는 예술 체험의 날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행사를 위해 KAF는 5명의 아티스트와 팀을 초청했다.

신민식 작가는 민주주의의 추상적인 형태를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예술을 일상 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모세스 로스 작가는 참가자를 초대해 판화와 재활용 재료의 콜라주를 결합한 '리프롤리지(Reprőllage)'를 제작한다.

한국미술포럼(Korea Art Forum, KAF)은 22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 바운 플레이그라운드(Union St +Sanford Ave 코너)에서 문화행사 '한국미술포럼 2023 공유대화, 공유공간'을 진행한다. 입장은 무료이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제공=한국미술포럼]

스테파니 알바라도와 낸시 파레데스 작가는 미래의 기억을 위해 성소수자(LGBTQ), 노인들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초상화를 찍고 보존한다. 광장극단(The Square Theatre)은 이민자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수집된 질문을 사용하는 참여형 공연을 펼친다.

김연진 작가는 강력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두 가지 예술 및 공예 형식인 '공동 조각보'와 '내러티브 패브릭 콜라주'를 선보인다.

'공유대화 공유공간'은 관객과 예술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아시아 정서와 뿌리 깊은 인종 분열을 막기 위해 사회 변화 및 문화 생산 과정에서 예술의 다양한 주제와 다차원적 역할을 탐구한다.

◆ 한국미술포럼(Korea Art Forum/KAF) = 2013년 뉴욕에서 설립된 KAF(kafny.org)는 예술가, 학자, 평화주의자들이 이끄는 단체이다. '예술을 통해 세계를 연결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건강 및 안녕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연결성, 관련성 및 형평성 등의 예술 가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KAF의 목표는 현대 미술계 및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공존 및 협력, 공동 번영의 평화로운 세상의 창조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을 대중이 참여하는 사회적 산물로서 포착하는 생태 인간 중심의 예술 프레임워크를 촉진하는 것이다.

시각 예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운영되는 KAF는 매년 예술계와 그 너머의 사람들을 모아 포용성과 다양성, 형평성 및 접근성을 지지하고, 상호 연결된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누고,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작품 창작 지원, 전시회, 포럼,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약 링크: https://www.eventbrite.com/e/2023-shared-dialogue-shared-space-sdss-tickets-618020926227
△문의: bsheen@kafny.org

KCS · NAPCA, 코로나 19백신 관련 이벤트 개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국립아시아태평양고령화센터(NAPCA)는 19일 오후 2시 베이사이드에 있는 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약 120명이 함께 참여하여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교육 세미나 및 클리닉을 진행했다. 또 백신 접종 및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최신 정보를 함께 나누었다. △문의: (718) 939-6137, janehlee@kcsny.org